





총론

- 1 초등 논술의 성격
- 2 국어과의 보충적 지위로서의 초등 논술 교육
- 3 교수·학습의 방향
- 4 지도상의 유의점
- 5 교과서의 구성 체제
- 6 연간 교수·학습 계획



1 초등 논술의 성격

논술은 어떤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나 주장을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 전개함으로써 상대방을 설득하는 글쓰기 방식이다. 또한 문제를 발견하고 발견한 문제를 구체화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장을 내세우며, 자신의 주장을 논증의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글쓰기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수준에서 논술은 주장과 설득을 목적으로 글을 쓰는 활동이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기는 어렵다. 개인의 삶과 사회에서 접하는 다양한 문제를 여러 관점에서 생각해 보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발행한 자료 등을 종합한 초등 논술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 초등 논술은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총체적 학습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교육부는 2007년부터 교사 연수를 시작으로, 2009년 초등 교과서에 논술 관련 글과 목표를 추가해 논술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입시 위주의 논술 교육에서 벗어나 초등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총체적인 교육 활동으로의 논술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교육부는 앞으로 학생들의 창의적·논리적 사고력 향상을 위해 학교 독서 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여 학교 교육과정 및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논술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규 교육과정에서 체계적인 논술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초·중학교의 국어 교과에 논술과 직접 관련되는 정보 전달 텍스트·설득 텍스트 등을 반영하고, 도덕·사회·과학 등의 교과에 논술 관련 학습 목표를 추가하여 논술 지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정보 전달 텍스트 예시: 설명문, 실험 보고서, 요약문(인터넷 자료), 홍보하는 글(지역, 학교) 등

※ 설득 텍스트 예시: 건의·항의하는 글, 논증하는 글, 서평, 논평, 제안서, 사설/칼럼 등

㉡ 초등 논술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도하는 논리적인 표현이다.

논술을 글자 풀이하면 『論(논리)+述(서술)』이다. 즉 논술은 이치에 맞게 합리적으로 근거를 들어 서술하는 글이다. 논설문이나 주장하는 글처럼 생각을 표현하는 글뿐만 아니라 논쟁, 토의, 토론, 구술 등의 논리적인 말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시기에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표현하여 설득하는 글쓰기 또는 문제와 해결의 짜임 글쓰기로 일관하는 논술 교육은 바람직하지 않다. 초등학교 시기에는 자아 형성을 위해 글씨를 바르게 깨끗이 쓰는 일, 사물과 현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

㉢ 초등 논술은 생각 잘하기이다.

논술은 정해진 정답이나 특정 교과목의 암기된 풀이 과정과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다. 논술은 특정 학문이나 특정 교

과서의 배경 지식만을 요구하는 글쓰기 활동이 아닌 범교과 차원의 지식과 사고력을 요구한다. 그래서 통합 교과형 논술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통합 교과형 논술은 사고력을 측정하고, 과정을 중시하며, 영역 전이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생을 중시한다. 사고력은 비판적·창의적인 사고인가를 보며, 과정을 중시한다는 것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영역 전이적이라는 말은 한 교과에서 배운 학습이 다른 교과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 학습 영역이 통합되어 있다. 즉 학생이 배우는 많은 교과와 지식이 곧 논술의 바탕이 된다. 그래서 논술에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종합적인 사고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를 고차원적 사고라고도 한다. 하지만 초등 논술에서는 글을 통한 표현 기교의 신장보다 학생들의 사고 발달을 자극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학습 활동이 더 중요하다. 수업의 형태도 지식 알기에서 내 지식 만들기로 바뀌어야 한다. 어떤 사물에 대해 생각해 보고, 써 보면 자연스럽게 내 지식이 된다. 초등 논술은 생각을 잘 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이다.

㉠ 초등 논술은 독서·토의·토론과 함께 이루어진다.

논술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꾸준히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야 한다. 논술은 주어진 논제나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해 해결책 또는 대안을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글로 잘 표현해 내는 것이다. 이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책을 읽고 논리적으로 써 보는 연습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논술은 외우거나 글쓰기 요령을 배워 짧은 시간에 이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논술에는 자신의 주장이 꼭 필요하며, 제시된 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견해를 논리적으로 펼칠 수 있어야 한다.

초등 논술은 독서·토의·토론과 연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글은 무엇인가 알아야 쓸 수 있는 것이고, 읽기의 기본은 독서에서 나오며, 비판의 훈련은 토의·토론에서 길러진다. 결국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독서는 지식과 사고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학교마다 독서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아울러 토의·토론 수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논술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2

국어과의 보충적 지위로서의 초등 논술 교육

㉠ 초등 논술 교육의 필요성

학생들이 창의적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을 창의적, 주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창의적 사고 역량’ 즉 ‘자기 생각’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기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기존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다양한 관점으로 문제를 분석하여 독창적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 생각을 만드는

능력,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나타내고 표현하는 능력인 ‘논술’은 미래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교육이다.

초등 논술 교과서는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성취 기준 기반 각 학년별 위계를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과를 아울러 각 교과 영역의 내용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으며, 풍부한 읽을거리에 대한 자극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한 단원이 다양한 생각을 찾고, 생각을 나누고, 쓰는 활동까지 일련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어 균형 잡힌 사고력 및 상생적 지식 생성 능력 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나 국어과 성취 기준에 따른 초등 논술 교과서의 보충 사항

초등 논술 교과서는 이러한 국어과 성취 기준에 따른 초등 논술 교과서의 보충 사항을 학습 내용, 중심 활동, 핵심 역량으로 제시하였다. 중심 활동은 사실, 논리, 추론, 감상, 비판 등으로 이루어지며, 핵심 역량은 ‘국어’가 추구하는 역량인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자료·정보 활용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 문화 향유 역량, 자기 성찰·계발 역량으로 제시하였다.

중심 영역	2015 개정 국어과 성취 기준 (초등학교 1~2학년군)	인정 도서 보충 사항		
		단원 및 학습 내용	중심 활동	핵심 역량
읽기	[2국02-03] 글을 읽고 주요 내용을 확인한다.	3단원 「마음을 나타내요」 - 인물의 마음을 살펴보고 나의 마음 표현하기	·논리 ·추론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
	[2국02-04] 글을 읽고 인물의 처지와 마음을 짐작한다.			
	[2국02-05] 읽기에 흥미를 가지고 즐겨 읽는 태도를 지닌다.	7단원 「더 멋진 방법」 - 이야기를 읽고 이어질 내용 상상하기	·논리 ·추론	·자기 성찰·계발 역량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쓰기	[2국03-02]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한다.	4단원 「이야기 속 인물에게」 - 이야기 속 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 쓰기	·감상 ·비판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 ·문화 향유 역량
	[2국03-03] 주변의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짧은 글을 쓴다.			
	[2국03-04] 인상 깊었던 일이나 겪은 일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쓴다.	5단원 「알면 알수록」 - 글을 읽고 새로 알게 된 사실 찾기	·사실	·자료·정보 활용 역량
	[2국03-05] 쓰기에 흥미를 가지고 즐겨 쓰는 태도를 지닌다.	8단원 「생각이 드러나게」 - 어떤 일에 대한 나의 생각 표현하기	·비판 ·논리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중심 영역	2015 개정 국어과 성취 기준 (초등학교 1~2학년군)	인정 도서 보충 사항		
		단원 및 학습 내용	중심 활동	핵심 역량
문법	[2국04-01] 한글 자모의 이름과 소릿값을 알고 정확하게 발음하고 쓴다.	1단원 「낱말 세상으로 풍덩」 - 그림을 보고 알맞은 낱말 떠올리기	·사실 ·논리	·자료·정보 활용 역량
	[2국04-02] 소리와 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알고 낱말을 바르게 읽고 쓴다.	2단원 「문장 마법사」 - 글과 그림을 보고 문장 만들기	·사실 ·논리	·자료·정보 활용 역량
	[2국04-04] 글자, 낱말, 문장을 관심있게 살펴보고 흥미를 가진다.	10단원 「바른 말 틀린 말」 - 낱말을 바르게 고쳐 쓰기	·사실	·자료·정보 활용 역량
문학	[2국05-02] 인물의 모습, 행동, 마음을 상상하며 그림책, 시나 노래, 이야기를 감상한다.	6단원 「장면을 떠올리며」 - 시의 장면을 다양하게 표현하기	·감상	·문화 향유 역량
	[2국05-05] 시나 노래, 이야기에 흥미를 가진다.	9단원 「이런 제목 저런 제목」 - 이야기의 제목 짓거나 바꾸기	·감상 ·추론	·문화 향유 역량

3

교수·학습의 방향

논술 교육의 필요성은 이미 전부터 대두되었지만, 2000년대 초반 교육부에서 '논술 교육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우수 대학들이 앞다투어 논술을 대학 입시에 도입하여 몇 년 동안 유행하다 보니 초등 논술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강화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초등 논술은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정상적인 교육 활동의 과정에서 창의적·논리적 사고력과 표현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초등 논술의 교수·학습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초등 논술은 생각하는 훈련, 사고하는 방법을 지도해야 한다.

초등 논술 능력을 가늠하는 잣대로 흔히 글쓰기 능력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글솜씨도 아주 중요한 논술 능력의 한 요소이다. 하지만 초등 논술 지도에서는 글을 통한 표현 기교의 신장보다 학생들의 사고 발달을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활동이 더욱 중요하다. 초등 논술의 요령이나 형식적인 틀을 지나치게 강조하기보다는 생각하는 훈련, 사고하는 방법을 지도해야 한다.

나 초등 논술은 범교과적인 통합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논술은 정해진 정답이나 특정 교과와 암기된 풀이 과정과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고 범교과 차원의 지식과 사고력을 요구한다.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창조적인 인재를 육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창조적인 사람은 문제나 사건에 대한 해결 능력을 스스로 판단하여 대응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또한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하며 혁신하는 도전적인 사람이다. 오늘날 급변하는 시대에는 이러한 인재를 요구하고 있으며, 창조적인 사고력을 기르는 데 중요한 동기 부여가 되는 것이 바로 통합 교과 논술이다. 따라서 초등 논술은 국어나 사회 등 특정 교과 시간에만 논술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과에서 범교과적인 통합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 초등 논술은 다양한 사고를 통하여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논술은 모범 정답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창의적인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논술에는 '문제 해결과 설득'의 과정이 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되 그 방법이 새로우면서도 기존의 해결 방법보다 더 좋다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창의적인 글쓰기이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이나 의견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글이 바로 논술이다. 즉 논술은 문제 해결을 위한 언어적 전략인 것이다. 따라서 초등 논술은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자신의 생활 경험이나 독서 체험과 관련지어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라 초등 논술은 활발한 독서·토의·토론 활동이 필요하다.

모든 학습 활동의 성취가 그러하기는 하지만 특히 논술 능력은 단기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독서, 사고 훈련, 글쓰기 등의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하게 하면서 논리적인 표현 능력이 자연스럽게 습득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초등학생은 무엇보다 연령에 맞는 독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학, 역사,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며 글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독해력을 키워야 하고 비판적인 읽기를 통한 사고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독서·토의·토론은 논리적 사고력과 글쓰기의 바탕이다. 학생들은 독서를 통해서 수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음과 동시에 논리적인 표현들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이를 통하여 토의나 토론 과정에서 논리적인 말하기가 가능하고 나아가 논리적인 글쓰기로 발전하게 된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는 독서와 토의·토론을 연계한 논술 교육을 해야 한다.

마 초등 논술은 어휘력·표현력을 늘리기 위한 활동 과정이 필요하다.

논술에서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곳에 정확한 어휘를 찾아 쓸 수 있는 어휘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어휘력이 부족한 글은 맛없는 글이 되기 쉽다. 그리고 어휘력이 부족하면 표현력 역시 부족하기 마련이다. 이처럼 어휘력은 논술에 필요한 기초적인 능력이다. 어휘력은 어휘의 뜻과 쓰임에 관심을 갖고 문맥에 맞게 알맞은 어휘를 찾아 쓰는 공부를 통해 길러진다. 따라서 초등 논술은 꾸준한 독서를 통한 어휘력 기르기에 힘쓰고, 생활 속에서 올바른 대화 기법을 익혀 선생님이나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 표현력도 길러 주어야 한다. 1, 2학년은 낱말이나 하나의 문장 수준 정도로 생각을 나타내는 표현 능력을, 3, 4학년은 타당한 근거를 들어가며 생각을 표현하는 단계의 능력을 그리고 5, 6학년에서는 자료나 근거를 제시하며 설득력 있게 생각을 펼치는 수준의 능력을 기르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바 초등 논술은 재미있는 활동이어야 한다.

초등 논술은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고 지적 호기심과 성취감을 느끼는 활동이어야 한다. 학생이 평소에 관심 갖고 있지 않았던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다루어야 하며,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제재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다각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논리적·창의적으로 사고하여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활동을 구안해야 한다. 과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도 혼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고 친구, 선생님, 가족과 토의·토론을 하도록 하여 다른 사람과 생각을 상호 교류함으로써 협력적 학습 태도를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학습 성취감을 맛보도록 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논술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지도상의 유의점

가 본 교과서는 과정 중심 접근법에 따라 구성되어 있으므로 읽기와 쓰기의 전 과정에 교사의 역동적인 개입을 필요로 한다.

과정 중심 접근법은 읽기와 쓰기를 역동적인 의미 구성 행위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읽기 전 배경 지식의 활성화, 읽기 중과 후의 내용 이해 및 파악 확인, 쓰기 전 아이디어 생성, 쓰기 후의 공유와 협의를 통한 생각 나누기 과정에 교사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읽기나 쓰기 과정을 교과서를 그냥 따라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참여하여 보다 학습자가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하고 풍성한 사고를 하도록 유도해 주어야 한다.

나 상황이나 시기에 적절하게 영역·단원을 선택하여 지도하여도 무방하다.

학습 상황이나 제재, 시기에 따라 교과 학습과 관련된 단원이 있을 경우 본 교과서의 차례에 관계없이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본 교과서는 1단원부터 10단원까지 다양한 내용과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수준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따라서 순서대로 지도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단원을 선택하여 지도할 수도 있다.

다 단원의 학습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나 추가 학습 활동을 창의적으로 활용한다.

학습자의 깊이 있고 다양한 사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본문에 제시된 자료 외의 보조 자료를 활용하거나 추가적인 학습 활동을 교사 나름대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내면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관점을 제공하는 것은 본 자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